

중기부, 국장급 박치형·최원형 승진 인사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자 국장급 승진 인사를 통해 소상공인정책관에 박치형 국장, 읍부즈만지원단체에 최원형 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중기부에서 인력개발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직전엔 장관 비서관을 맡았었다. 최원형 읍부즈만 지원단체장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벤처 혁신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각각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 최원형 읍부즈만지원단체장

역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디딤, 민영푸드와 프랜차이즈 개발 맞손 외식 기업 디딤과 민영푸드가 민영활어공장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초밥의 대중화 및 배달 강화를 위해 맛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민영활어공장을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민영푸드 이만규 대표(왼쪽)와 디딤 이병택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있다. /디딤



오리온, 5년 연속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오리온그룹은 베트남 감자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기계, 연구시설 등을 기증하는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를 5년 연속 진행하고 6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에 있는 팡린성 동짜우시 빈즈영면과 타영화성 응아선현 응아쯔영면 등에 1억2000만원 상당의 트랙터와 로타리 등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오리온

한국타이어 J2A어워드 2년 유일 '우수' 평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저니 투오모메이션 어워드(이하 J2A 어워드)'에서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획득하며 디지털 전환 성과를 인정받았다.

6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J2A 어워드'는 글로벌 타이어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유럽고무저널 주관의 시상식으로, 타이어 기업들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노력을 공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J2A 어워드'의 타이어 제조-생산자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타이어 컴파운드물성 예측 모델 'VCD 시스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VCD 시스템'은 사전에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컴파운드의 특성을 예측,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도 최적의 컴파운드 조합법을 만드는 기술이다.

인사

- ◆EY한영 ◇감사본부 부문장 △2부문 이복한 △3부문 송재익 △FAAS부문 오창택 △오퍼레이션부문 이준호 △세무본부 부문장 △BTS 부문 우승엽 △ITTS부문 이기수 △GCR부문 신장규 △마켓부문 우승백 ◇전략재무자문본부 부문장 △EY-파트너스 부문(공동) 박상은 최재원 △TCF부문 김범수 ◇금융사업본부 부문장 △감사부문 박상욱 ◇파트너 △강민우 △권영재 △김윤식 △김태환 △김희은 △방명수 △신종우 △이길재 △최영철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권은은 △박기형 △박수현 △신동준 △오승필 △정재원 △정지영 △황도선
- ◆EY컨설팅 ◇부부장 △테크놀로지컨설팅부

문 맹한주 △비즈니스컨설팅부문 이진우 △마켓부문 유인상 △오퍼레이션부문 김용범 ◇파트너 △강동호 △김도균 △최형하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김종문 △배영인 △이치영 △황진석

부음

- ▲ 강금선 씨 별세, 김중규(세종의소리 대표) 씨 모친상 = 5일 오전 7시, 경북 의성 공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8시.
- ▲ 박형주(전 CBS전남본부 기자)씨 장모상 = 6일 오전,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농협장례식장 2실, 발인 8일 오전.
- ▲ 황태중(파이낸셜뉴스 광주전남본부장·전광주일보 기자)씨 부친상 =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발인 8일 오전.

'혁신' 시장되는 美 거래소



특별기고 강태홍 교수

9월 미국에서 가동을 시작한 거래소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무기로 기존 거래소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이들의 혁신적인 시도는 미국의 자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대담한 시도로 보인다.

먼저 LTSE(Long Term Securities Exchange)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기업공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상장 요건을 조정하고,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도 정책적으로 장기적 성장계획을 갖도록해 장기투자자 우대 정책을 편다.

이 거래소 창업자 겸 초대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리즈(Eric Ries)는 9년 전 그의 저서 '더 린 스타트업(The Lean Startup)'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모금에 나서 9000만달러를 모아 드디어 지난 9월 미국의 14번째 정규 거래소(National Securities Market)를 탄생시켰다. 개장일에 1억 1770만달러의 거래를 기록했고, 아직은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만 거래를 하지만 스타트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거래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MEMX(Members Exchange)는 2차례의 연기 끝에 9월 21일(현지 시간) 7종목을 대상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MEMX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처음부터 매우 큰 관심을 끌었는데 골

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JP모건(J.P.Morgan), UBS, 블랙록(BlackRock) 등 18개의 투자회사나 금융회사들이다. 멤버스 익스체인지(Members Exchange)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멤버들을 위한 거래소로 자신들의 전략을 '저비용(Low cost)'과 '연결(Connectivity)'로 공표한 바 있다.

가동 일주일 전인 9월 15일 MEMX는 유동성 공급자(maker)에게는 호가 공개 여부에 따라 100주 당 20~29센트, 유동성 수취자(taker)에게 100주당 25센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마켓 데이터 및 거래소 접속에 대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동성 공급자에게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현재 증권사(broker-dealer)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접속 비용과 마켓 데이터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기존 거래소들이 생존을 위해 마켓 데이터의 매출 비중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는 상황에 비추면 혁신적이다 못해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할 정도로 공격적이다.

또 이들은 거래소 접속 회선의 대역폭(bandwidth)을 점진적으로 25GbE(25 Giga bytes bps Ethernet)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에 맞게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의 10G에 비해 마켓 데이터의 수신과 호가 전달 및 체결 수신에 있어 훨씬 더 적은 '지연(latency)'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시장에서는 LP들의 유동성 공급자와 수취자(maker-taker)의 차이를 이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고빈도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세가 장벽이 되어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거래세도 점진적으로 내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개인들은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에 거래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호가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다이내믹(dynamic)해질 것이다. 물론 가격의 움직임 역시 변동성과 함께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소들과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일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치른 시장에서 이긴 자나, 혹은 설사 진 자라 해도 선진 시장에서 충분한 실습을 경험한 알고리즘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대목이다.

더구나 미국 시장에는 이미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트레이딩 플랫폼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이들은 거래로 인한 시장 충격과 역선택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한다고 하니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모두를 위해 좋은 시스템이다.

미래 상황은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우리 시장 상황에서 시장과 중개인, 그리고 투자자들은 '스마트(Smart)'함을 겸비해야 할 시점이다. 특별히 시장과 금융회사들은 해외의 훨씬 '더 스마트(smarter)'한 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 애매한 투자자들이 '봉'노릇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송실대정보과학대학원 금융IT학과 겸임교수

미술, 저항의 언어로 쓰는 진실의 기록



홍경한 역사의 시시일각

미술은 정치적, 자본주의적 계급과 그것으로부터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애도의 목소리를 담는다. 세상에 만연한 온갖 탐압과 불평등, 소수성, 가난을 대리고 저항하는 언어로 쓰는 진실의 기록이다. 또한, 전시는 사회와 예술의 접점에서 발견·수집된 역사를 포함한 현실의 뒷면을 조직화해 보여주는 투쟁의 실험실이다. 학제 간, 장르 간에 놓인 고정적 미의식이 해체되는 무대 이면서 혼돈의 현재를 반추하는 성찰의 장이다.

이러한 미술과 전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온 곳은 '카셀도큐멘타'(Kassel Documenta)이다. 5년에 한번 독일에서 개최되는 이 국제 미술행사는 모더니즘 작가들을 '퇴폐예술가'로 규정해 추방하거나 약탈한 나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카셀도큐멘타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건 스위스 태생의 큐레이터인 하랄트 제

만이 감독을 맡은 1972년 제5회부터이다. 그는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었던 프랑스 6·8혁명(1968) 이후 유럽의 변화를 전시에 반영했고, 이러한 예술의 본질과 역할,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내세운 미술은 오늘의 카셀을 만든 반석이 되었다.

가장 근래 열린 2017년 '카셀도큐멘타 14' 역시 특유의 미적 투쟁의 성격을 담보했다. 스위스 바젤 쿤스트할레의 디렉터를 지낸 아담 심척이 큐레이팅한 '카셀도큐멘타 14'는 서구 예술의 정신적 축이지만 최근 경제적 변방으로 밀려난 그리스의 위상을 '아테네에서 배우기'라는 주제 아래 기존 정치체제와 도덕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장르와 형식의 경계 없이 전개시켰다.

주 전시장인 프리드리히 광장엔 3만권의 금서로 만든 신전이 세워졌고, 1933년 나치에 의한 분서갱유가 일어난 장소인 프리드리히아눔 골목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 다니엘 노어의 작품 '날숨 운동'(2017)이 설치됐다. '금서의 신전'은 유럽이라는 그릇에 비민주적 억압과 탄압의 역사를 뒤섞었고, 다니엘 노어의 '날숨 운동'은 과거 나치 정권이 자행한 폭력과 학살에 희생당

한 영혼을 위로하고 자유의지를 연기로 표현했다.

이 작품들은 역사의 과오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자는 다층적인 함의를 품고 있다. 안타깝게도 카셀도큐멘타가 추구해온 현실적 발언으로서의 예술, 공론의 장은 생각만큼 흔하지 않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네 피폐한 삶은 달라진 게 없으나 미술과 전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자문하지 않는다.

한국만 해도 1년에 2만여 회에 달하는 전시가 열리지만 인류 공통의 문제에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전시는 드물다. 새로운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동시대 예술과 사회, 정치와 역사, 과거와 현재의 폭력을 되묻는 작품들도 보기 어렵다.

이제 그 자리는 장식으로서의 미술, 알팍한 대중정서와 자본주의의 노예임을 고백하는 장면들로 채워졌다. 다들 허영게 흐리멍덩한 눈을 한 채 오로지 부자들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거나 사적 욕망 실현을 위한 미술의 도구화에만 관심을 갖는다.

/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매경 예술감독